

조계종 포교원은 4일 올해를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선포했다. 교구 분·말사 포교활동을 지원하고 군·경, 청소년포교에 지역 사찰의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지역포교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종무기관 - 포교현장 연계강화 “해법”

신도교육체계 확립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본·말사 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행정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교 활성화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교구본사와 단위사찰이 포교의 활동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의 주도로 진행돼 온 지역포교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신도기독교교육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이 조계종 전체사찰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의 시행지침이 말사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재교육의 경우 시행 6개

수 있는 다양한 수련법회 모델 개발은 연구 과제가 아니라 당장 실현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대한 홍보방법의 다양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군·경 포교 활성화

군법당은 현재 40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군법당을 관리하고 장병들의 신생활을 이끌어야 할 군법사는 120여명에 불과하다. 군법사 1인당 4곳의 군법당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군부대와 군법당이 집중돼 있는 전방지역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5만여명에 달하는 전·의경 포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 250여 군법당과 일반 사찰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분야별 목표	실천 과제
본사 포교행정 강화 및 교구본말사 신도회 강화	· 본사포교국정회의의 강화 · 전법도량 지원관리체계 확립 · 수도권포교연구회 구성 및 운영 · 신도회 현황파악 및 등록 유도, 본말사 연계방안 마련
기본·전문교육 정착 및 신도교육위 운영 내실화	· 신도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실화 · 기본교육 설문조사, 평가제시나, 교재 제작 · 지도자교육 연구개발, 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 직할교구 재교육 심화, 신도단체장 등 각종연수
수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실행종합정보망 구축	· 사찰별 특성화, 다양화된 수련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 포교기반 강화 · 사찰수련회 운영자 연수 · 수련법회 정보센터 확대 상설화, 실행종합정보센터 운영 · 주5일근무제에 따른 포교프로그램 연구개발
군·경 포교 활성화	· 군법당 및 군신도 등록 확대 · 군법도량 지원관리체계 구축 · 경승단 지원관리 활성화 · 전·의경 포교기반 구축
청소년포교 활성화	· 제2회 청소년국제캠프 성공 개최 ·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중앙-지방조직체계 정비 · 청소년 포교주체 구축 및 조직화
국제포교의 안정적 기반 확충	· 해외사찰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 · 국제포교 지침서 제작 보급, 전문인력 양성 · 국제포교 연구팀 구성, 운영 · 포교신도단체 지도자의회의 · 포교신도단체 실무자 교육 · 신년 포교전대회
포교·신도단체 사업별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은 효과적인 청소년 포교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청소년 불자들의 실행 지도와 상담을 담당할 교사들의 절대적인 부족도 청소년 포교의 미래를 어렵게 한다. 어린이와 청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청소년층의 중요성에 비해 포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님과 신도회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지역사찰의 관심과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중·고교 법회 운영 유무에 따라 주지 인사교과에 반영하는 등 종단 차원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국제포교

현재 한국 내에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위한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전혀 없다. 3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2만여명

의 주한미군 등 국내거주 외국인은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다. 조계종은 국제포교사제도를 두고 140여명의 국제포교사를 배출했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해외에 건립된 한국사찰과 포교인력, 외국인 불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조처가 전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포교를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다. 장기적인 해외포교 계획안을 세우고, 불교서적의 외국어 번역판 발간, 외국어가 능통한 스님 및 국제포교사의 해외 파견과 지원 등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더 이상 헛되이 살 수는 없다” 구더기 치우면서 얻은 깨침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주원 소장
경블면 아침을 여는 집

한 노숙자의 일기

“헛거워요? 뭘 헛겨준다는 거죠. 말이 좋아 노숙자 ‘쉽터’지 길거리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1년 동안 같이 살아도 서로 이통도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그런 형편인데 누가 누굴 헛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도씨를 칭찬하고 싶어요. 밥 먹을 때가 되면 보살님을 도와 식사 준비도 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헛겨주고 계세요.”

평소 말이 없던 박명수씨(49·가명)가 가족회의 시간에 김씨를 칭찬한다. 김중도(51·가명)씨는 칭찬을 받고 속스러운 듯 “칭찬 받은 만한 일은 아닌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을 여는 집에서 따스한 잠자리를 얻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함께 생활하는 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쉽터에 머무르는 사람 가운데 몸, 마음 어느 한쪽이든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김씨는 지난 1991년 교통사고로 1년 가까이 치료받고 퇴원했다. 사고 후 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으나 2년간 재활훈련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재활훈련으로 장애를 이겨낸 뒤 매제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참 사업을 벌였을 때 갑자기 매제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서 저는 거래처나 외상대금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매제가 세상을 떠나자 여기 저기서 돈을 받으러 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됐더라고요”

김씨는 계속해서 빛이 늘어나자 2001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뒤로 한 채 야반도주 하듯 서울로 왔다. 서울로 올라온 김씨는 아침을 여는집에 입소한 뒤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인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방향 끝에 아침을 여는집에서 알선해 준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나마 임시직이어서 몇 달 뒤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는 하늘에서 별 따기다.

“공단에도 많이 쫓아 다녔어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도 많지 않지만, 고용한다고 하는 곳을 가보면 일반인도 힘들어서 꺼리는 일을 하라고 하니 어디 할 수 있어야죠.”

김씨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한다. 그는 공공근로에 참여해 “골목청소를 하다가보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더군요. 구더기를 손으로 만지고 치우면서 더 이상 헛되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런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은 제가 구더기 치우면서 번 돈이니가 세상 어떤 돈 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고 한다.

아침을 여는 집은 노숙인쉼터 가운데 유일하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노숙인과 일반인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두터운 현실에서 이들과 생활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김씨는 “다 같이 오갈 데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칭찬해 주고 보듬어 주면 잘 따라와 줍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같이 생활해 보니 모두들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꿈을 묻는 질문에 김씨는 “설렁탕 집을 하고 싶어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한 그릇 퍼줄 수도 있고요.”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들에게 정병 새로운 아침이 올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희망’이야말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힘이 될 것이다.